

의과대학생의 전공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¹

김형준 · 박서진 · 김정은 · 박은철¹ · 이후연¹

= Abstract =

Factors Influencing the Specialty Selection of Medical Students

Kim Hyungjoon, Park Seojin, Kim Jeongeun, Park Euncheol¹, MD, PhD, Lee Hooyeon¹, MD, PhD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¹, Seoul, Korea*

Purpose: We wanted to further analyze the qualities that influence Korean medical students on their decision to choose each of the specialized areas of medicine.

Methods: We were able to obtain questionnaires from 394 students of Y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The students rated the various influential factors for specialty selection by using a five-point Likert scale.

Result: The factors found to influence the selection of popular specialties were gender, grades/scores, lifestyle attributes, and residency issues. Patient contact, lifestyle attributes, prospects, income prospects, and health care policies were significantly rated factors for choosing clinical-oriented specialties. For the selection of Medical specialties, gender, income, social responsibilities, income prospects, and malpractice insurance costs were the influential factors. Gender, 3rd year students, social responsibilities, prospects, income prospects, and society's views on medical profession affected the students' decisions to choose the major specialties.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our study, we can conclude that gender and income prospects are some of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a student's selection of a specialty. These results suggest reform and improvement for a more stable health care policy and management strategies.

Key Words: Specialty selection, Influential factors, Medical students

교신저자: 이후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Tel: 02)361-5342, Fax: 02)392-8133,
E-mail: lhy135@kma.org

서 론

최근 개원 가능성이 높거나, 주로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통하여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의료사고의 위험부담이 비교적 적은 전문과목으로 전공의 지원이 편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의료사고의 부담이 높은 반면, 낮은 의료보험 수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받는 전문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은 이미 만연화 되어 있고 이로 인한 전공의 수급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종합병원에서는 의료법상 필수 진료과목의 전문의 미확보문제와 전공의 양성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일부 병원에서는 특정과의 전공의가 부족하여 특정 전문과목의 진료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인력자원의 수요 및 공급의 불균형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생들의 전공분야 선택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외과학과 기초외과학에 대한 희망정도를 측정한 박정환 (1999) 등의 연구가 있었고, 의과대학생의 희망진료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인구학적 특성, 입학동기 특성으로 나누어 고찰한 권성준 (2001) 등의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의대생의 전공분야 선택에 관한 국내연구는 위의 논문을 제외하면 미비한 실정에 있으며, 전공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거나 범주화해서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반면, 국외 연구에서는 의과 대학생들의 전공선택과 관련된 요인을 다양하게 접근한 연구들이 많았다. Kassebaum (1994) 등은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전공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36가지 항목으로 제시하였고, 임상외학 분야를 일반전공 분야 (generalist specialties), 내과전문 분야 (medical specialties), 외과전문분야 (surgical specialties), 진료지원 분야 (support specialties)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각각의 요인들이 전공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Lieu (1989) 등의 연구에서는 의과대학 기간의 경험과 전공한 과의 내적 특성 변수를 포함하여 연

구하였다. 이외 다른 연구에서는 학생 때의 성적, 의료 시장변화, 의료사고 위험 정도, 삶의 질, 임상 교수의 영향 등이 진료선택에 관련 있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Schwartz, 1990; Carline, 1991; Jarecky, 1993; Osborn, 1993; Xu, 1999; Griffith, 2000; Novielli, 2001; Retchin, 2001).

국외 연구들에서와 같이 국내에서도 의대생의 전공선택을 단지 임상외과학 기초외과학에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임상분야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범주화시켜 나눠볼 필요가 있고, 의과대학생의 전공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몇 년간 각 과별 의료인력 공급의 양을 좌우할 대상인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각 전문과목에 대한 선호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서, 이를 근거로 좀더 합리적인 전공의 수급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가.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Y대학교 의과대학 본과1학년에서 4학년 재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395 (56.4%) 개의 응답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나. 연구의 틀

개인이 특정 전문과목을 선호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인구학적 구성, 입학동기 특성, 개인의 특성, 과의 특성,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 (Fig. 1)하고 각각의 요인이 전문과목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1) 독립변수

의과 대학생의 과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5가지 큰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학년, 학비 부담자의 월소득, 결혼여부 등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입학동기 특성은 의과대학을 진학한 동기, 입학 전형 방법으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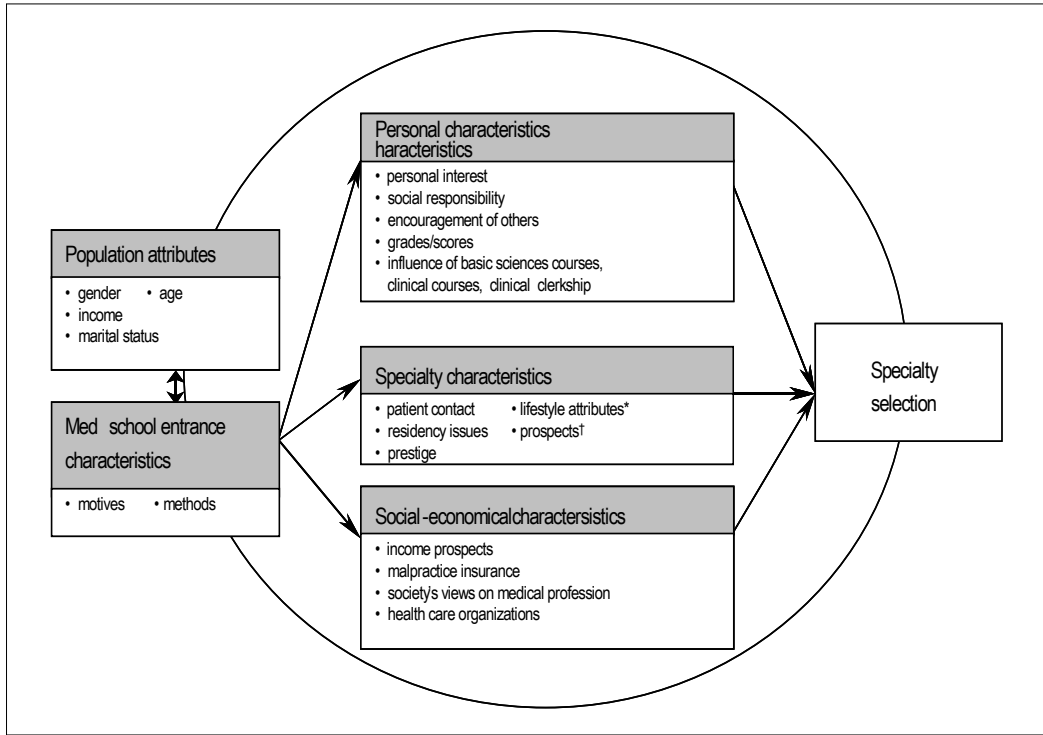


Fig. 1. The model of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 : amount of work hours, workload and stress
 † : job security, opportunities for teaching

의하였고, 셋째, 개인의 특성은 개인의 적성 및 흥미, 사회적 가치관 및 직업관, 부모나 친지 혹은 주위 의료인의 권유, 성적, 기초과목수업의 영향, 임상과목 수업의 영향, 임상실습의 영향 등으로 정의하였다. 넷째, 전문과목의 특성은 환자와의 접촉 여부, 전문과목의 근로시간과 업무량, 선택한 과목의 전공의 수요, 개원 및 취직 전망 등으로 정의하고, 마지막 사회 경제적 요인은 경제적 수입, 의료사고 위험 정도,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 의약분업 및 의료공급체계 등 국가의 의료정책으로 정의하였다 (Fig. 1).

2) 종속변수

전문과목을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신경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진단방사선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가정의

학과, 재활의학과, 비뇨기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응급의학과, 치료방사선과를 포함한 임상의학 분야와, 생화학, 생리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해부학, 병리학, 약리학, 예방의학, 의용공학, 법의학 등을 포함한 기초의학 분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전문과목을 4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첫째, 대한 병원 협회의 2001년도 2월 전공의 정원 대비 1년차 확보율을 토대로 전공의 1년차 확보율이 70% 이상일 때 인기과로 구분하였고, 70%미만인 경우 비인기과로 구분하였다.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정신과가 인기과에 포함되었고, 그 외 과들이 비인기과에 포함되었다. 둘째, 임상의학 분야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과목을 포함시켰고, 비임상의학 분야에는 기초의학과 특수 분야를 포함시켰다. 셋째, 수술을 하

Table I. Characteristics of Medical Students Surveyed in This Study

Variables			Number	%
Population attribute	Gender	Male	272	69.0
		Female	122	31.0
	Year	1st year	86	21.8
		2nd year	94	23.9
		3rd year	92	23.4
		4th year	122	31.0
	Income	< 1,000,000 won	30	7.6
		1,000,000~2,000,000 won	41	10.4
		2,000,000~3,000,000 won	88	22.3
		3,000,000~5,000,000 won	132	33.5
≥ 5,000,000 won		103	26.1	
Marital status	Married	9	2.3	
	Single	385	97.7	
Medical school entrance characteristics	Motives	Income prospects	53	13.5
		Personal interest	163	41.4
		Aspiration to become a doctor	72	18.3
		Encouragement of others	39	9.9
		Other	67	17.0
	Entrance Methods	Pre-medical class	339	86.0
	Female	55	14.0	
Total			394	100.0

는지의 여부에 따라 내과계와 외과계로 나누고, 산부인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를 외과계로 포함시켰다. 넷째, 주요 전문과목으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를 포함하고, 그 외에 해당하는 과목과 구분하였다. 그리고 그 외 언론계, 정치계, 법조계, 제약회사 등을 포함한 특수 분야를 구분하였다.

다.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외과대학생들의 과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5개의 대항목과 23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전문과목 선택에 있어서 설문지를 통해 조사된 16가지 항목들을 3가지의 영역(개인적 요인, 과의 특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영역별 점수는 Likert 5점 척도로 점수화 한 것에 대해 평균을 구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입학동기 특성과 같은 명목형 변수들에 대해서는 t-test를 시행하였고, 나이와 Likert 5점 척도로 표시된 개인적 요인, 과의 특성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해서는 χ^2 검정을 시행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입학동기 특성, 개인적 요인, 과의 특성,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요인들 중 전문과목 선호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은 윈도우즈용 SAS 8.1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 과

가. 일반적 특성

전체 조사대상자 중 남학생이 69.0%로 여학생보다 많았고, 학년별 구성은 각 학년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으나 본과 4학년이 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은 300~500만원인 경우

Table II. The Distribution of Speciality Selection

Variables			Number	%
Clinician	Medical part	Internal medicine	100	25.4
		Pediatrics	35	8.9
		Physciatry	21	5.3
		Neurology	7	1.8
		Dermatology	17	4.3
		Diagnostic radiology	5	1.3
		Family medicine	11	2.8
		Rehabilitation medicine	4	1.0
		Laboratory medicine	1	0.3
		Surgical part	General surgery	24
	Obsterics and gynecology		10	2.5
	Ophthalmology		16	4.1
	Otolaryngology		21	5.3
	Plastic surgery		18	4.6
	Orthopedic		20	5.1
	Chest surgery		11	2.8
	Neurosurgery		12	3.1
	Urology		5	1.3
	Anestherology		4	1.0
	Therapeutic radiology	1	0.3	
Emergency medicine	4	1.0		
Non-clinician	Biochemistry	2	0.5	
	Physiology	1	0.3	
	Anatomist	1	0.3	
	Pathology	3	0.8	
	Microbiology	1	0.3	
	Preventive medicine	1	0.3	
	Pharmacology	2	0.5	
	Legal medicine	1	0.3	
Other	Lawer	5	1.3	
	Politician	1	0.3	
	Researcher in pharmacy	1	0.3	
	Other	4	1.0	
	Non	24	6.1	
Total		394	100.0	

가 1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입학동기 특성 중 의과대학 진학 동기로는 개인적 흥미와 관심 때문이라는 의견이 41.4%로 가장 높았고, 그 외 의사에 대한 동경이나 경제적인 이유라는 응답도 높았다. 입학 전형 방법으로는 의예과로 입학한 학생이 339명, 복수전공 및 학사입학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55명으로 각각 86.0%, 14.0%를 차

지하였다 (Table I).

나. 선호하는 과의 분포

내과가 100명 (2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아과 35명 (8.9%), 일반외과 24명 (6.1%) 순이었다. 조사 대상 중 24명 (6.1%)은 현재 선호하는 분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II).

Table III. Multivariat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the Selection of Popular Specialties over Non-popular Specialties

Variables			Odds ratio	95% CI [‡]		p-value	
Population attribute	Gender	Female	0.518	0.283	0.947	0.0326	
		Year	1st year	1.625	0.723	3.650	0.2399
			2nd year	1.702	0.753	3.849	0.2014
			3rd year	0.697	0.339	1.435	0.3277
	Income	< 1,000,000 won	0.777	0.238	2.535	0.6764	
		1,000,000~2,000,000 won	0.423	0.164	1.088	0.0742	
		2,000,000~3,000,000 won	0.484	0.217	1.079	0.0761	
		3,000,000~5,000,000 won	0.775	0.372	1.614	0.4958	
	Marital status	Single	4.070	0.386	42.866	0.2426	
	Medical school entrance methods	4-year university graduate	1.378	0.599	3.173	0.4507	
Personal characteristics	Personal interest	0.972	0.646	1.464	0.8922		
	Social responsibility	0.914	0.608	1.374	0.6655		
	Encouragement of others	1.091	0.811	1.468	0.5635		
	Grades/scores	1.374	1.050	1.797	0.0205		
	Influence of basic science courses	0.883	0.677	1.152	0.3595		
Specialty characteristics	Patient contact	0.969	0.724	1.295	0.8296		
	Lifestyle attributes*	1.510	1.109	2.056	0.0088		
	Residency issues	0.585	0.418	0.818	0.0017		
	Prospects [†]	1.431	0.986	2.078	0.0595		
	Prestige	1.102	0.767	1.583	0.6006		
Social economical characteristics	Income prospects	1.263	0.860	1.856	0.2341		
	Malpractice insurance costs	0.739	0.514	1.061	0.1010		
	Society's views on medical professi	1.250	0.838	1.864	0.2737		
	Health care organizaions	1.037	0.751	1.433	0.8242		

* : Amount of work hours, Workload and stress

† : Job security, Opportunities for teaching

‡ : CI, confidence interval

Compared with male (gender), 4th year (year), 5,000,000~(income), married (marital status)

다. 전문과목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인기과와 비인기 과목의 선택비교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로는 성별, 성적의 영향, 선택한 분야의 특성, 레지던트 수요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남성일수록, 성적이 과 선호도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고 생각할수록 또한 선택한 분야의 근로시간이나 근무량을 고려할수록 인기과를 선호하였다 반면 레지던트 수요를 고려하는 군에서는 인기과 보다는 비인기과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Table III).

2) 임상과 임상 외 분야의 선택비교

임상과와 비임상과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환자와 접촉 여부, 근로시간, 근무량, 지식수준, 경제적 수입, 앞으로의 전망, 의료공급체계나 의약분업 등의 정책적 요인이었다. 임상과를 선택한 집단에서는 환자와 접촉 여부, 근로시간, 근무량, 지식수준을 과 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그리고 경제적 수입을 고려할수록 임상과를 택하는 비율이 비임상과에 비해 2.672배 높았고, 비임상과를 선택한 집단에서는 앞으로의 전망, 의료공급체계나 의약분업 등의 정책적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Table IV).

Table IV. Multivariat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the Selection of Clinical Areas over Basic Sciences (Non-Clinical Areas)

Variables			Odds ratio	95% CI [‡]		p-value	
Population attribute	Gender	Female	2.219	0.491	10.016	0.3001	
		Year	1st year	0.838	0.145	4.829	0.8434
			2nd year	0.370	0.082	1.667	0.1956
			3rd year	3.726	0.567	24.506	0.1710
	Income	< 1,000,000 won	1.580	0.203	12.276	0.6620	
		1,000,000~2,000,000 won	13.513	0.881	207.187	0.0616	
		2,000,000~3,000,000 won	2.825	0.555	14.385	0.2111	
		3,000,000~5,000,000 won	2.808	0.639	12.341	0.1715	
	Marital status	Single	1.178	0.013	105.071	0.9430	
		Medical school entrance methods	4-year university graduate	0.586	0.127	2.712	0.4941
Personal characteristics	Personal interest	0.589	0.286	1.213	0.1509		
	Social responsibility	0.937	0.475	1.848	0.8504		
	Encouragement of others	1.122	0.610	2.065	0.7117		
	Grades/scores	0.975	0.535	1.775	0.9328		
	Influence of basic science courses	0.625	0.636	1.074	0.0890		
Specialty characteristics	Patient contact	2.081	0.223	3.543	0.0069		
	Lifestyle attributes*	2.188	1.166	4.105	0.0147		
	Residency issues	0.742	0.408	1.348	0.3275		
	Prospects [†]	0.335	0.157	0.712	0.0045		
	Prestige	1.285	0.633	2.608	0.4877		
Social economical characteristics	Income prospects	2.672	1.302	5.483	0.0073		
	Malpractice insurance costs	0.817	0.436	1.532	0.5288		
	Society's views on medical professi	2.362	0.985	5.666	.0541		
	Health care organizaions	0.339	0.169	0.679	0.0023		

* : Amount of work hours, Workload and stress

† : Job security, Opportunities for teaching

‡ : CI, confidence interval

Compared with male (gender), 4th year (year), 5,000,000~(income), married (marital status)

3) 내과계와 외과계의 선택비교

내과계와 외과계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에는 성별, 학비부담자의 월소득, 개인적인 요인으로 가치관이나 직업관, 사회적 요인으로는 경제적 수입, 의료사고 위험 정도가 있다. 이 중 남성에 비해 여성이 2.97배나 내과계를 선호하였고, 학비부담자의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 비해 100~200만원일 때 내과계 선호도가 5.13배나 되었다. 가치관이나 직업관, 의료사고 위험 정도를 더 많이 고려할수록 내과계열을 선호하는 경향이 컸다. 외과계열을 선호하는 집단에서는 경제적 수입을 중요시하였다 (Table V).

4) 주요과목과 비주요 과목의 선택비교

주요과목은 여성이 2.507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본과 4학년에 비해 본과 3학년이 2.418배 주요과목을 선호하였다.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비주요과목보다 주요과목을 선호하는데 2.239배 영향을 미쳤다. 비주요과목은 앞으로의 전망이나 경제적 수입에 의미를 많이 둘수록 선호하였다 (Table VI).

고 찰

가.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본 연구에서는 의대생의 전공선택을 임상의학분

Table V. Multivariat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the Selection of Medical Specialties over Surgical Specialties

Variables			Odds ratio	95% CI [‡]		p-value	
Population attribute	Gender	Female	2.970	1.623	5.435	0.0004	
		Year	1st year	0.498	0.233	1.066	0.0725
			2nd year	0.821	0.384	1.755	0.6111
			3rd year	0.687	0.330	1.432	0.3167
	Income	< 1,000,000 won	2.157	0.704	6.604	0.1782	
		1,000,000~2,000,000 won	5.130	1.926	13.663	0.0011	
		2,000,000~3,000,000 won	1.905	0.905	4.010	0.0896	
		3,000,000~5,000,000 won	1.463	0.741	2.888	0.2725	
	Marital status	Single	2.904	0.231	36.462	0.4089	
	Medical school entrance methods	4-year university graduate	0.847	0.377	1.903	0.6869	
Personal characteristics	Personal interest	0.780	0.530	1.148	0.2081		
	Social responsibility	1.685	1.141	2.487	0.0086		
	Encouragement of others	1.060	0.801	1.403	0.6825		
	Grades/scores	1.016	0.784	1.316	0.9038		
	Influence of basic science courses	1.140	0.874	1.487	0.3351		
Specialty characteristics	Patient contact	1.003	0.758	1.326	0.9856		
	Lifestyle attributes*	1.256	0.929	1.700	0.1390		
	Residency issues	0.879	0.666	1.161	0.3640		
	Prospects [†]	1.097	0.754	1.596	0.6296		
	Prestige	0.819	0.577	1.164	0.2656		
Social economical characteristics	Income prospects	0.341	0.222	0.525	<0.0001		
	Malpractice insurance costs	1.765	1.247	2.498	0.0014		
	Society's views on medical professi	1.372	0.950	1.982	0.0916		
	Health care organizaions	1.109	0.815	1.510	0.5107		

* : Amount of work hours, Workload and stress

† : Job security, Opportunities for teaching

‡ : CI, confidence interval

Compared with male (gender), 4th year (year), 5,000,000~(income), married (marital status)

야/비임상의학분야, 내과계/외과계, 주요과목/비주요과목, 인기과/비인기과로 각 분야의 특성에 따라 범주화 시킨 후, 의과대학생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국내 및 외국 문헌고찰을 통해 사회인구학적 특성, 입학동기특성, 개인적 특성, 과의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을 변수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전문과목 선택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요인을 연구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는 점에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각 요인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나.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전반적인 과선택도는 임상의학이 전체의 87.9%를 차지하였고 기초 의학 및 특수분야는 12.1%로 낮게 나와 이 분야에 대한 의과대학생의 관심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임상과목에서는 선택도가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순이었고, 임상병리학과, 병리학, 흉부외과, 진단방사선과 등은 낮은 선택도를 보였다. 이는 2001년 레지던트 1년차 지원율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박정환 (1999) 등의 연구조사에서 나온 과선택도와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한가지 특이한 사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과 다음

Table VI. Multivariat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the Selection of Major Specialties over Minor Specialties

Effect			Odds ratio	95% CI*		p-value
Population attribute	Gender	Female	2.507	1.358	4.629	0.0033
		Year	1.245	0.584	2.656	0.5700
		2nd year	1.259	0.591	2.684	0.5501
		3rd year	2.418	1.110	5.267	0.0262
	Income	< 1,000,000 won	1.503	0.469	4.811	0.4927
		1,000,000~2,000,000 won	1.822	0.727	4.565	0.2007
		2,000,000~3,000,000 won	1.230	0.567	2.668	0.5999
		3,000,000~5,000,000 won	0.984	0.493	1.966	0.9643
	Marital status	Single	3.563	0.340	37.374	0.2893
	Medical school entrance methods	4-year university graduate	1.290	0.583	2.855	0.5295
Personal characteristics	Personal interest	0.938	0.631	1.394	0.7515	
	Social responsibility	1.540	1.032	2.299	0.0345	
	Encouragement of others	0.989	0.746	1.310	0.9386	
	Grades/scores	0.980	0.753	1.276	0.8794	
	Influence of basic science courses	1.023	0.785	1.334	0.8645	
Specialty characteristics	Patient contact	1.032	0.769	1.386	0.8345	
	Lifestyle attributes	1.162	0.844	1.598	0.3577	
	Residency issues	0.779	0.579	1.047	0.0976	
	Prospects [†]	0.584	0.400	0.853	0.0054	
	Prestige	0.979	0.668	1.436	0.9142	
Social economical characteristics	Income prospects	0.449	0.300	0.672	0.0001	
	Malpractice insurance costs	1.000	0.719	0.392	0.9979	
	Society's views on medical professi	2.239	1.461	3.431	0.0002	
	Health care organizaions	1.190	0.865	1.637	0.2854	

* : Amount of work hours, Workload and stress

† : Job security, Opportunities for teaching

* : CI, confidence interval

Compared with male (gender), 4th year (year), 5,000,000~(income), married (marital status)

으로 소아과 희망자가 많았는데 이는 의약 분업 후 개원가능성이 높아져 소아과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4개 전문과목 범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과 임상 외 분야에 대한 선호도는 전문과목의 특성요인에서 환자와의 접촉여부, 선택한 분야의 특성, 미래의 전망, 사회경제적인 요인에서 경제적 수입, 의약분업 등의 국가정책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결과는 환자와 직접 접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경제적 수입을 고려할수록 임상을 택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한다. 반면에 의약분업, 의료공급체계 등의 국가 정책적

요인과 미래의 전망을 고려할수록 비임상분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래의 전망 요인에서는 임상보다는 임상 외 분야를 한 경우 그 영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이는 앞에서 의미있는 요인으로 분석된 경제적 요인과 같이 고려해 볼 때, 기초 의학 부분이 미래의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노력에 비해 경제적으로 정당한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 외 임상과 비임상 과목을 선택하는데 있어 입학전형방법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여러 의과대학에서 기초의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학사편입이나 복수

전공으로 학생을 선발하거나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려고 하는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내과계와 외과계에 대한 선호도 분석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요인에서 성별, 학비부담자의 월소득이, 개인적 요인에서 가치관이나 직업관이, 사회경제적 요인에서는 경제적 수입, 의료사고 위험정도가 의미있는 요인이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내과계를 2.970배 선호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여성에서 가정생활과 양육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가치관이나 직업관으로 사회봉사나 책임감,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이 클수록 내과계를 선호하였다. 또한 의료사고의 위험을 많이 고려할수록 내과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등으로 인한 부담감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과 지원을 높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외과수술에 대해 위험부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제도를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셋째, 주요과목과 비주요과목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요인에서는 성별, 본과 3학년인 경우, 개인적 요인에서는 가치관이나 직업관이, 과의 특성요인에서 미래 전망, 사회경제적 요인에서는 경제적 수입,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영향을 주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주요과목을 더 선호하는 결과는 주요과목이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비교적 여학생들의 지원이 많은 과목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본과 3학년이 본과 4학년에 비해 주요과목을 선호한 것은 임상실습의 경험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단면연구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과관계는 알 수 없었다. 그 외 개인적 요인에서 가치관/직업관이 높을수록,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신입도를 많이 고려할수록 주요과목을 선호하였다.

넷째,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선호도 결과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에서는 성별, 학비 부담자의 월소득, 개인적 요인에서는 성적, 과의 특성요인에서는 선택한 분야의 특성과 레지던트 수요 등이 의미있는 영향

을 주었다. 성적영향을 많이 고려하는 사람일수록 인기과를 선호했는데, 이는 성적이 높을수록 전공의의 수요가 적은 인기과에서의 경쟁에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근로시간이나 근무량 등 선택한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경우 인기과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문과목별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더불어 주요 요인별로 영향을 주는 전문과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의 경우 남자는 인기과의 선호도가 높았고, 여자는 임상, 내과계, 주요과목 등을 더욱 선호하였다. 둘째, 수입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임상과, 내과계, 주요과목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셋째, 개인의 특성 중 가치관이나 직업관을 많이 고려할수록 내과계와 주요과목의 선호도가 높았다. 넷째, 과의 특성 중 전문과목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량, 스트레스 등을 많이 고려할수록 비인기과보다 인기과가, 비임상과보다 임상과의 선호도가 높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많이 고려할수록 비임상과와 주요과목의 선호도가 높았다. 따라서 성별은 4가지 구분의 전문과목 선택에 모두 영향을 주었고, 사회경제적 요인 중 수입도 3개의 전문과목 구분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의과대학생의 성별과 전문과목의 수입이 전문과목 선택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문과목별 전공의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정부에서는 비인기과의 전공의들에게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약속하였지만, 근본적인 정책이나 의료환경의 개선이 없다면 이러한 단기적인 지원만으로 전공의 수급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임상 의학분야의 의료인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히고, 어떤 요인들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통한 합리적인 전공의 수급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의과대학생의 전반적인 과선호도 경향을 보면 임

상의학이 87.9%, 기초의학 및 특수분야는 12.1%였다. 그러나 실제 비임상 분야 지원율은 이보다 훨씬 적은데 비임상분야의 인력확보를 위해 임상과 기초의학간의 보수격차를 줄이고, 기초 의학에 대한 투자나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임상과 비임상을 선택하는데 입학전형방법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학사편입이나 전문대학원제를 도입한다 해도 기초의학이나 의학관련 특수분야를 전공할 사람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복수전공이나 학사편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필요하고, 기초의학 활성화를 위한 다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사고의 위험을 고려할수록 내과계를 선호하는 것은 의료 사고에 대한 보험제도의 확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경제적 수입정도가 전문과목 선택에 있어 비주요 과목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았을 때 좀더 합리적인 수입배분을 위한 의료정책이 수립되어야 전문과목별 적절한 의사인력 수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권성준(2001). 의과대학생의 희망진로실태와 영향요인. 서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정환, 김경환, 전해리(1999). 의과대학생의 의학교육 및 의료에 대한 의식 조사: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계획. *한국의학교육*, 11, 365-378.
 Carline JD, Greer T(1991). Comparing Physicians' Specialty Interests upon Entering Medical School with Their Eventual Practice Specialties. *Academic Medicine*, 66, 44-46.
 Griffith CH, Georgesen JC, Wilson JF(2000). Specialty Choices of Students Who Actually Have

Choices: The Influence of Excellent Clinical Teachers. *Academic Medicine*, 75, 278-282.
 Jarecky RK, Donnelly MB, Rubeck RF, Schwartz RW(1993). Changes in the Patterns of Specialties Selected by High and Low Academic Performers before and after 1980. *Academic Medicine*, 68, 158-160.
 Kassebaum DG, Szenas PL(1994). Factors Influencing the Specialty Choices of 1993 Medical School Graduates. *Academic Medicine*, 69, 164-170.
 Lieu TA, Schroeder SA, Altman DF(1989). Specialty Choices at One Medical School: Recent Trends and Analysis of Predictive Factors. *Academic Medicine*, 64, 622-629.
 Novielli, K, Hojat M, Park PK, Connella JS, Veloski JJ(2001). Career Choice: Glass Ceiling or Glass Slipper. *Academic Medicine*, 76(10), S58-S61.
 Osborn EHS(1993). Factors Influencing Students' Choices of Primary Care or Other Specialties. *Academic Medicine*, 68, 572-574.
 Retchin SM, Boling PA, Nettleman MD, Mick SS(2001). Marketplace Reforms and Primary Care Career Decisions. *Academic Medicine*, 76, 316-323.
 Schwartz RW, Haley JV, Williams C, Jarecky RK, Strodel WE, Young B, Griffen WO Jr(1990). The Controllable Lifestyle Factor and Students' Attitudes about Specialty Selection. *Academic Medicine*, 65, 207-210.
 Xu G, Hojat M, Brigham TP, Veloski JJ(1999). Factors Associated with Changing Levels of Interest in Primary Care during Medical School. *Academic Medicine*, 74(9), 1011-1015.